폭염·폭우에 널뛰는 농축산물 가격…소비자물가 또 오른다

광주 1.7%·전남 2.1% 상승…생활물가지수도 전년 동월보다 높아
광주 수박 57%·전남 닭고기 8% 상승…7월 소비쿠폰 사용 영향도

지난달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물가지수 역시 동반 상승해 체감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9로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보합 수준이다. 전남 소비자물가지수는 117.33으로 전년 동월보다 2.1%, 전월보다 0.1% 각각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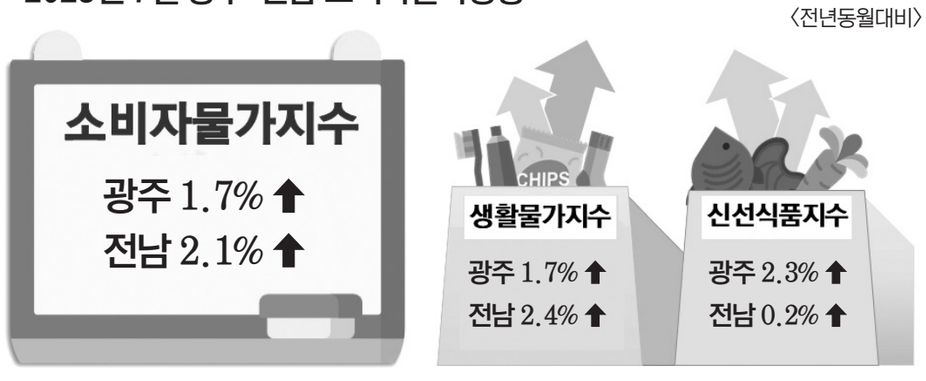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한 지수이며, 생활물가지수는 체감 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다.

광주는 서비스(1.9%)와 상품(1.6%)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고, 전남 역시 서비스(2.7%)와 상품(1.6%)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전남은 개인서비스 가격이 3.3%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

생활물가지수도 동반 상승했다. 광주는 전년 동월 대비 1.7% 올랐고, 전남은 2.4% 상승해 광주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선식품지수는 광주 2.3%, 전남 0.2% 각각 올랐다.

세부적으로 광주에서는 교통(1.1%), 오락·문화(0.7%), 음식·숙박(0.5%) 항목이 전월보다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5.2%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지수 상승 폭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분석된다.

■ 2025년 7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



전남지역도 교통(1.3%), 오락·문화(0.7%), 음식·숙박(0.5%)이 올랐고, 전기·가스·수도는 -6.5% 떨어졌다.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기타상품·서비스 등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도 전년보다 물가가 올랐다. 광주는 음식·숙박(3.2%), 기타상품·서비스(4.1%)가, 전남은 식료품·비주류음료(3.3%), 기타상품·서비스(5.2%)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도 7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지난 6월(2.2%)보다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두 달 연속 2%대 상승세다.

전국 농·축·수산물은 지난해 7월보다 2.1% 올랐다. 지난 6월 상승률(1.5%) 대비 0.6%p 오른 값이다. 특히 축산물·수산물은 각각 3.5%, 7.3% 급등했다. 7월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폭염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꼽힌다.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 가축 폐사, 수온 상승 등이 농축수산물 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여력을 키우며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기나 과일 등 평소에 많이 소비하지 않던 상품에 소비쿠폰을 사용하면서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 농산물·축산물 물가에서는 수박(57.3%), 닭고기(5.6%) 등이, 전남은 닭고기(8.0%), 돼지고기(5.0%) 등이 올랐다.

한편 전월 대비로는 광주와 전남 모두 물가 상승세가 다소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생활 전반에서 체감 물가는 높은 상황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쌀 20kg당 3000원 할인…정부, 여름철 물가 안정 총력

한우·닭고기 등 공급 확대…21일까지 수산물 최대 50% 할인 행사

정부가 여름철 먹거리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배추·수박·쌀·한우 등 주요 식품의 가격 할인이나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런 물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배추 방출 규모를 전월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고사·유실 피해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공급도 50만주 늘리기로 했다. 수박 등 폭염·폭우 영향을 크게 받은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최근 소비자가격이 오른 쌀은 유통업체와 협력해 20kg당 3000원 할인하는 행사도 별도로 한다. 한우는 출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달에도 평시대비 30%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닭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선 국내 입식(병아리를 들이는 것)을 확대한다. 태국산 닭고기는 지난달 말까지 4000t 수입을 완료했고, 브라질산 닭고기는 이달 중순부터 수입한다.

계란은 산지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매주 수급동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오는 21일까지 44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함께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다. 고등어·갈치 등 대중성 어종과 마른김·전복·장어·광어·우럭 등 주요 양식수산물이 대상이다.

가공식품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식품·유통업체 주관으로 라면이나 과자 등 수요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계속한다.

외식 체감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공공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2회 주문시 횟수 제한 없이 1만원 쿠폰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요금 과다 인상이나 가격 미게시,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을 집중 단속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8월도 힘들다…건설업 체감 경기 3개월째 '흐림'

7월 전달보다 0.4p 하락한 73.1…부정적 전망 높아

건설업 체감 경기가 3개월째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를 조사한 결과 전달 대비 0.4포인트(p) 하락한 73.1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CBSI는 지난 4월(74.8)부터 7월(73.1)까지 3개월 연속 하락세다.

7월 공종별 신규 수주 지수는 주택(74.6)이 8.9포인트 상승했으나 토목(70.7)과 비주택(63.0)은 각각 1.7포인트, 4.8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지수는 -2.7포인트, 지방 지수는 -4.4포인트 떨어졌다.

기업 규모별 지수는 대기업(92.9)과 중견기업(66.7)이 각각 0.6포인트, 3.7포인트 올랐지만, 중소기업(59.8)은 4.4포인트 떨어졌다.

이달 전망 지수는 지난달 지수(73.1)보다 7.4포인트 낮은 65.7로 조사됐다.

건산연은 "건설 경기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종합전망지수 역시 100 이하로 건설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 비중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은 쭉~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5일 "이달 집중호우, 폭염 등 여파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주재한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물가 경로에 대해 이같이 전망하고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상 상황에 따라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이어질 수 있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만큼, 8월 전망 시 물가 경로를 면밀히 점검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1% 올랐다. 농축수산물가격 상승에도 석유류 가격이 하락 전환하면서 6월(2.2%)보다 상승률이 소폭 낮아졌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 '2025년 인도네시아 농기계·농업기술 박람회'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국내 농기자재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인도네시아, 'K-농기자재' 기술력에 빠지다

농어촌공사, '인도네시아 농업박람회' 참석·145만 달러 수출 협약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5년 인도네시아 농기계·농업기술 박람회(INAGRITECH 2025)'에 참석해 국내 농기자재 기업 18개 사와 한국관을 운영하고 14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농기계·농업기술 박람회는 올해 11회를 맞은 인도네시아 최대 농업박람회로 4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농업 부문 관계자 2만 5000여 명이 참관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케이(K)-농기자재는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국내기업은 317건 2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6건 14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에 성공했다.

또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인도네시아 사무소와 현지 농업대학 관계자들이 한국관을 방문해 케이(K)-농기자재의 기술력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효성오앤비(주)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한국 농기자재 기업에 있어 '제2의 내수시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박람회에서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요를 확인한 만큼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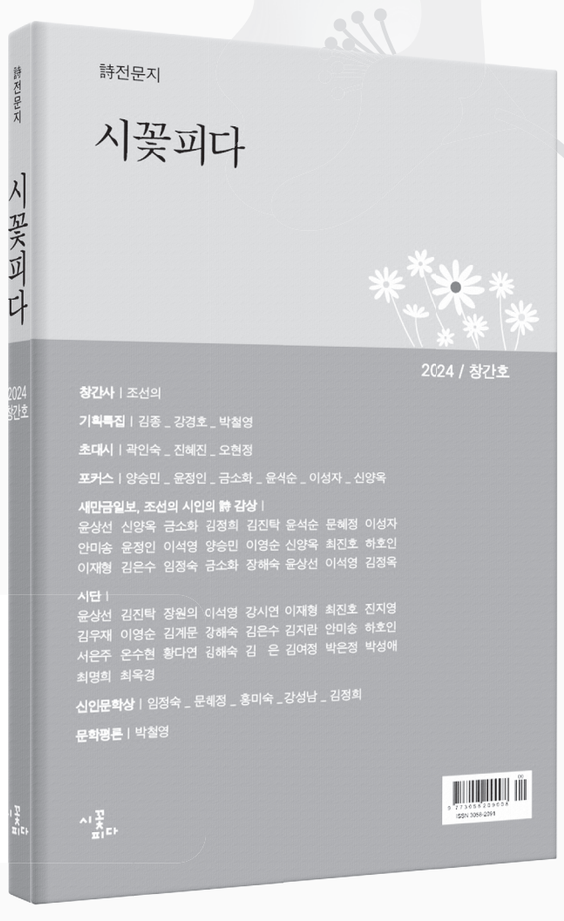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공사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이 혁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이번 박람회에서 구축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촛불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빛을 소환하다』『꽃 향기의 밀서』,『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